

‘기록문화의 도시 전주, 아픈 역사도 남긴다’

도시 아픈 역사 기억·역사교육 자료 활용 위해 연말까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 역사 책 발간

전주시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한 것은 도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함이다.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의 도시답게 그동안 도시 곳곳에 산재한 역사의 그늘과 그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아픈 기억을 지우지 않고 보존해 도시의 경쟁력이자 자산으로 만들었다.

과거의 흔적을 도시의 경쟁력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관광 거점도시 전주의 거점인 전주한옥마을을 꼽을 수 있다. 고즈넉한 한옥 600여 채가 빼곡이 들어서는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성안으로 진출해 상권을 확장하자 이에 반발한 전주사람들이 풍납동과 교동 일원에 한옥촌을 조성하면서 시작했다. 일제강점

기 일본식 주택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전주한옥마을은 한옥과 한복, 한식 등 한문화의 정수가 살아있는 여행지가 됐다.

시는 또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항일흔적도 지우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완산칠봉 일원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해왔다. 일본에서 송환된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인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 125년 만에 안장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해방 이후에도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도시에 남겨진 다양한 역사적 장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명성황후 시해와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던 민족반역자인 이두환의 묘와 묘비로 향하는 기린봉아파트 진입로에는 단죄비를 세우고, 친일행위 논란이 있는 김해강 시인의 시비가 위치했던 덕진공원에 친일행적을 기록한 단죄비를 세웠다. 광복회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김해강 시인의 시비는 최근 시민들의 공간인 덕진공원에서 철거돼 사유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다과교에 세워진 일본 건축양식의 석등에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반대로 시는 일제가 남긴 치욕스러운 역사가 도시의 정체성이 되는 일은 막기 위해 일제 잔재 청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있

며, 일본 미쓰비시 창업자의 호인 ‘동산’에서 유래된 옛 ‘동산동’의 명칭을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여의동’으로 변경했다.

시는 향후에도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도시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폭력을 앞세워 일상을 침탈한 후 우리 삶 깊숙이 뿌리 내린 일제의 잔재들을 살살이 찾아내 단죄하고, 도시의 아픈 기억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피와 땀, 일생을 바쳐 헌신했던 선조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수소산업 자문위원회 구성

정부 수소정책 대응 수소산업 발전 기본방향 수립·사업 발굴 지원

전주시가 지역 수소산업 발전에 힘을 보탬 동력을 장착했다.

시는 6일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대학 교수 5명과 함께 ‘전주시 수소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수소산업 자문위원회에는 이흥기 우석대학교 교수, 이종희 전북대학교 교수, 유동진 전북대학교 교수, 심종표 군산대학교 교수, 김남훈 전북대학교 교수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흥기 교수는 현재 수소경제 표준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종희 교수는 정부 수소산업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수소정책에 대응하는 전주시 수소산업 발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국가·자체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역 내 수소 기업·대학교·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정부의 수소정책과 민간기업의 수소생산, 수소액화기술, 연료전지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논의 및 전주의 수소산업 현황과 사업 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또 수소 소재, 부품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도시’로서의 가능성과 수소 활용 플랫폼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12월 완주군과 함께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홍보관 건립,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선정

고용유지 정책·일자리사업 추진전략 등 좋은 평가 받아

‘해고 없는 도시’와 ‘착한 임대운동’ 등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020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시민들에게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창출 목표와 대책을 매년 공시하고 실천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일자리 계획, 집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고용유지 정책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사업 추진전략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제조

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요식업, 의료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 동참해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힘을 모았다. 시는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지원 등으로 고용안정을 뒷받침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을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했다. 여기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전주 착한 캠페인’을 통해 지원 사격했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탄소 등 미래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탄소산업 분야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국가탄소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에 힘을 쏟았다.

이외에도 전주혁신창업허브를 개관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전주시는 고용노동부의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020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했으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청년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장애인·노인 일자리 확대, 특고·프리랜서 지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 등에 주력했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년 대비 취업자 수와 상용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모두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주답게 극복했다”면서 “일지라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사회적 방파제인 만큼 4대 신성장산업과 청년창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라감영 인근에 여행자 도서관 조성 추진

전주의 첫인상인 첫마중길에 이어 여행에 관심있는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라감영 인근에도 여행자를 위한 도서관이 생긴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구 다가치안 센터(완산구 전라감영2길 28)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칭)다가 여행자도서관’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첫마중길에 조성된 여행자도서관에서 두 번째로 구축되는 이 여행자도서관은 연면적 140㎡ 정도, 지상 2층 공간에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공간, 주제별 추천도서를 전시하는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건물 외부는 밖에서 전시된 책들을 볼 수 있도록 전면 통유리 형태로 시공되며, 내부는 서적 열람 및 전시 등이 가능한 개방공간으로 꾸며진다. 또

옥상 테라스에는 여행객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이 도서관이 워딩 관련 상점이 모여 있는 이른바 ‘워딩단길’에 조성되는 만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앞서 한국출판인회와 타 지자체 여행자도서관 관계자, 총괄조정건축가 등과 자문을 진행해온 시는 이달 내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건축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다가 여행자도서관이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객리단길 등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나서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 농수로 등에 대량으로 번식해 토종 식물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시박’ 제거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 금성정제식장 주변 등 6곳 약 2만1500㎡를 대상으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식물

15종 중 하나인 가시박은 일년생 덩굴식물로 번식력이 매우 강해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 생육을 저해하고 고사에 이르게 하는 등 토종식물의 서식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식물이다.

사업 구역은 덕진공원 주변, 금성정제식장 주변, 하수처리장 주변, 전미동 일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장교마을 주변 등 총 6개 구역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